

2020
11

병리협보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Technologists News



www.kamt.or.kr

등록번호 성북 라 00009호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전문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원활한 병리협보 배송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도로명주소·5자리 우편번호로 개인정보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CONTENTS

02 KAMT NEWS

대한임상검사와과학회지, 등재학술지 유지

05 NEWS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07 INTERVIEW

허성욱 정읍시보건소장

08 COLUMN

세계임상병리사연맹(IFBLS)란?

10 INTERVIEW

나는 오늘도 보건소로 출근합니다

제454호

병리협보 제작에 도움주신 분들

- Global Standard of Reference Lab.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 고객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충일화학
- 대한민국 전통 유전자분석 전문기업, 코젠바이오텍
- Bright Technology, right decision. 브라이텍
- UNI-VERSITY를 넘어 NEW-VERSITY로 신한대학교

발행인 장인호 / 편집인 김 철
편집위원 김건한, 이우주, 허성일
기자 최현빈

디자인·인쇄 혜성디자인
Tel : 02)469-0577

발행소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
Tel : 02)3291-5435
Fax : 02)3291-5621



우리 협회는 지난 27일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단체 및 CEO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사회적 가치 부문 단체대상을 수상했다.

동아일보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 '2020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단체 및 CEO 경영대상'은 사회적으로 신뢰와 존경을 받는 단체 및 CEO를 선정·시상하는 상이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전국의 임상병리사가 코로나19 검체 채취 및 확진검사를 진행해 'K-방역'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힘을 보탤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그동안 사스, 메르스 사태를 격으면서 신종 감염병 유입에 대한 대응 노하우를 구축하였고, 올해 코로나19가 발생하자 곧바로 임상병리사 회원들에게 코로나19의 특징과 검사방법에 대해 정보 공유 및 교육을 제공하여 검사를 전국적으로 즉시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협회는 국내 회원에게만 정보를 공유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Real time RT-PCR' 검사법에 대한 영상 매뉴얼을 만들어 해외 유관 단체 및 학회에 배포했다. 외신에서 'K-방역'이라며 극찬한 우리나라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검사 시스템 뒤편에는 하루 2만 건 이상의 검사를 묵묵히 수행하는 임상병리사가 있었다.

또한 2년 후에 개최될 세계임상병리사연맹 총회 및 학술대회(IFBLS-2022 KAMT) 한국 유치는 협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학술행사로 전세계 및 국내 임상병리사 1만여 명이 참석해 국내외 진단검사기술 교류 활성화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K-방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대표로 단체대상을 수상하게 된 장인호 협회장은 "오늘 사회적 가치 부문 대상 수상은 밤낮없이 코로나19 검사에 힘쓴 임상병리사 선생님들의 역할을 사회에서 인정해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K-방역과 국민건강 수호에 최선을 다하는 임상병리사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중앙회소식

대한임상검사와학회지, 등재학술지 유지

지난 11월 2일 한국연구재단은 2020년도 학술지평가 재인증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 협회에서 발간하는 대한임상검사와학회지는 등재학술지를 유지하게 되었다. 2020년에 등재학술지로 유지됐을 경우 2026년에 재인증 평가를 시행하게 된다. 평가대상 기간은 신청 직전 3년인 2023~2025년의 학술지를 평가한다. 이후 매 6년마다 등재학술지로 재인증을 받는다.

2020년 평가를 통해 등급이 유지되는 학술지는 평가된 해인 2020년 1월 1일부터 해당 등급이 적용된다.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선정기준은 등재후보학술지 80 이상/100점, 등재학술지 85 이상/100점, 우수등재학술지 95 이상/100점(단, 영문 학술지이면서 스킵스 등 재학술지인 경우로 제한)이다. 본 학술지 재인증평가에서 정량평가의 경우 27/30점, 정성평가는 66.07/70점, 총 93.07점을 획득하였다. 특히 총점과 대분류 직전 2년간 IF(피인용지수, 영향력지수, Impact Factor)가 상위 25.1%~50%에 해당하는 점수를 획득한 것은 고무적이다. 그 외에 학술지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학문분야의 특수성과 학술적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고도화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이에 편집위원회에서는 회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워크샵 등의 행사를 활용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대한임상검사와학회지는 지난 2월 25일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DOAJ)에 등재됐다.

아래 표는 이번 등재학술지 평가 항목 및 배점표다. 배점과락은 단계 배점의 70% 미만일 경우 탈락, 항목과락은 체계평가 중 2, 3, 4번 중 하나라도 0점이거나 내용평가 6번의 별도 항목과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탈락된다.

구분	항목	배점	비고
신청 자격	1. 발행의 규칙성 및 정시성	P/F	
	2. 논문당 심사위원 수	P/F	
	3. 연구윤리	P/F	
	4. 논문 투고 다양성	P/F	
	5. 학술지 기본체계 구축	조건부 P/F	
	5개 항목	P/F	

체계 평가 (정량)	1. 연간 학술지 발간 횟수	4	
	2. 학술지 및 수록 논문의 온라인 접근성	10	항목과락
	3. 주제어 및 논문 초록의 외국어화	4	항목과락
	4. 게재 논문의 투고, 심사, 게재확정일자 기재	3	항목과락
	5. 논문게재율	5	
	6. 편집위원장의 안정성	4	
	6개 항목	30	배점과락
내용 평가 (정성)	1. 게재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성과	20	
	2. 편집위원회의 전문성	15	
	3. 논문집의 구성과 체제의 완전성 및 가독성	10	
	4. 투고논문 심사제도의 구체성 및 엄정성	15	
	5. 논문초록의 질적 수준	5	
	6. 연구(출판)윤리 강화활동의 구체성 및 엄정성	5	항목과락
	6개 항목	70	배점과락
	(가점) 학문분야 특수성의 학술적 가치	최대 3점	가점
계	100		

편집위원회는 “이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학술지 및 학문분야의 특성에 맞는 전문성, 정체성, 특수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2026년에는 우수등재지를 목표로 우수등재지 기본항목 5개를 충족해 더욱 인정받는 학술지를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우수등재지 등재에 필요한 5개 항목은 학회 운영기간, 등재학술지 자격 유지기간, 분야별 연간 학술지 발간수, 연간 논문게재편수, 2010년 이후 학술지 평가점수다.

대한임상검사와학회 편집위원회

이기중(위원장), 구본경(부위원장), 박창은(간사), 강지혁, 강효찬, 김진희, 김성현, 박상구, 성지연, 성현호, 김진관, 윤현, 진현석, 이상희

중앙회 활동보고서

2020.10.01 ~ 1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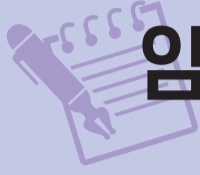
- ▶ 10월 9~10일: 제58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팬데믹 시대를 대응하는 임상병리사의 역할’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종합학술대회에는 약 7,169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 ▶ 10월 15일: 협회관 대회의실에서 검진기관 및 중소병원발전위원회 회의가 진행됐다. 중소병원을 위한 협회 홈페이지 콘텐츠 개발, 불법의료사례 분석, 중소병원 의원 회원 대상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이 이날 회의에서 논의됐다.
- ▶ 10월 24일: 제455차 상임이사회가 협회관 2층 서울시회 강의실 및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됐다. ▲광주보건대 업무협약 체결의 건 ▲교부금 지급 ▲제58회 종합학술대회 학술프로그램 운영 현황 ▲종합학술대회 국무총리 격려 영상메시지 제작 ▲협회 모바일 앱 회원가입 및 ID/비밀번호 찾기 기능 추가 등의 내용이 보고됐다. 또한 성북구청 대민사업 자원봉사 기금 지원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 ▶ 10월 26일: 보수교육위원회 회의가 협회관 대회의실 및 화상에서 진행됐다. 시도회 및 분과학회 일정, 2020년도 임상병리학과 학생 현장실습대체 동영상 콘텐츠 제작 협조 요청의 건 등의 내용이 보고, 논의되었다.
- ▶ 10월 27일: 화상으로 임상병리학과 학생현장실습 동영상 콘텐츠 제작에 관한 회의가 진행됐다.
- ▶ 10월 28일: 서울 서초구에서 국무총리비서실과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제58회 종합학술대회를 위해 보내준 정세균 국무총리의 축하 영상 사후 활용방안이 이날 회의에서 논의됐다.
- ▶ 10월 29일: 서울 성북구청에서 대민사업 자원봉사 기금 지원과 관련한 회의가 진행됐다.

장인호 협회장 활동보고서

2020.10.01 ~ 10.31

- ▶ 10월 6일: 종합학술대회 진행을 위한 공보부 회의에 참석해 개회식 및 폐회식 준비 현황을 점검
- ▶ 10월 7일: 협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ASCPi 홍보 방안에 대해 논의
- ▶ 10월 14일: 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자문단 회의를 진행
- ▶ 10월 15일: 협회관 대회의실과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종합학술대회 동영상을 재게시하는 안건에 관해 논의
- ▶ 10월 17일: 협회관 대회의실에서 화상과 병행해 협회관 가치 제고 추진 TF팀 회의를 진행
- ▶ 10월 19일: 서울 종암동에서 2022년 IFBLS 준비를 위해 관련 업체와 간담회 진행
- ▶ 10월 22일: 협회관 대회의실에서 협회 홍보기획 및 사회공헌사업에 관한 회의를 진행
- ▶ 10월 23일: 협회관 2층 서울시회 강의실에서 열린 서울시회 회원 간담회에 참석
- ▶ 10월 24일: 대전광역시에서 2020년 시도회장단 간담회를 진행
- ▶ 10월 27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동아일보 ‘2020 가장 신뢰받는 단체 및 CEO 경영대상’ 시상식에 참석
- ▶ 10월 28일: 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제58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학술상 시상식을 진행
- ▶ 10월 29일: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관에서 진행된 제8차 의료기사총연합회 회의에 참석
- ▶ 10월 30일: 삼성서울병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시험위원회 회의에 참석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상병리사 생활수기 공모전



공모주제

- 코로나19와 관련한 후기 및 위험한 순간
- 사회적 거리두기로 변화된 일상
- 코로나19 감염체험사례(본인 및 가족 등)
- 그 외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코로나19 관련 내용

응모자격

- 임상병리사

응모기간

- 접수: 2020.9.1.(화) ~ 2020.11.30.(월) 24:00까지
- 발표: 2020년 12월 초순,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및 개별통보

관련문의

- 02-3291-5435 (내선 2번)

참여방법

-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협회 홈페이지 > 협회소개 > 공지사항)
- 우편: (02811)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41, 4층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사무국 전산홍보팀 앞
- 전자우편: kamtreporter@daum.net

출품규격

- 수량: 1인 1점(팀·공동작업불가)
- 규격: A4용지 10매 내외, 200자원고지 30매 내외 (바탕체 13p, 줄간격 160%)

제출

- ① 한글(hwp)양식의 참가신청서
 - ② 작품 한글(hwp)파일
 - ③ 활동사진
- ※ 우수상 이상 수상작의 경우 저작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상내역

구분	인원	상금
대상	1명	100만원
우수상	2명	각 50만원
장려상	5명	각 10만원

※제출 작품은 타 공모전에 당선되거나 출판되지 아니한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허구의 수기로 밝혀질 경우 수상을 무효 처리함



K-방역, K-바이오 그 시작점에 항상 (주)코젠바이오텍이 있습니다

국내 최초 개발 및 공급

- 2020년 코로나19 (긴급사용승인 1호)
- 2015년 메르스
- 2009년 신종플루



서울시회

서울특별시임상병리사회,
3차 상임이사 회의 개최

서울특별시임상병리사회(회장 이재진)는 지난 10월 6일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서울시회 강의실에서 3차 상임이사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회 집행부 임원, 사무장 및 주임이 참석하였다. 회의는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해 마스크 착용 및 체온측정, 손소독, 좌석 간 띄어 앉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이뤄졌다.

이날 회의의 주요 보고사항으로는 제58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온라인 개최, 서울시회 온라인 보수교육 시행, 2020년 부서별 하반기 사업 계획, 코로나19 의료기사 격려수당 차등 지급에 관해 보고하였고, 안건으로는 온라인 화상 회의, 온라인 보수교육 사전등록회원 기념품 제공의 건에 대해 검토·논의했다. 또한 기타 토의사항으로 서울특별시장상 표창 상신의 건을 회장단에게 위임하기로 정했고, 2021년 정기이사회 일정에 대해 공지하였다.



임상화학검사학회

임상화학검사학회,
추계학술대회 온라인으로 개최

대한임상화학검사학회(학회장 김명수)는 2020년 추계학술대회를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온라인 학술대회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임상화학검사학회 온라인 학술대회는 11월 14일(토) 개최되며 PC 및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학술대회는 당일인 11월 14일에만 시청이 가능하며 주요 프로그램으로 ▲위험도관리의 실제 - 인종심사 자료를 중심으로(서울성모병원 차경호) ▲내·외부 정도관리의 실제 - 알기 쉬운 정도관리(세브란스병원 정은진) ▲골표지자검사의 이해와 적용 - 골다공증과 비타민 D(경동대학교 박용원) ▲감염관리(필수의무교육)이 예정되어 있다.

김명수 학회장은 초청의 글을 통해 "이번 온라인 학술대회를 통해 정도관리 기법과 임상 검사에 대한 연관 지식을 폭넓게 배웠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협회 제휴카드 연회비 납부일자 변경

협회 연회비를 할인된 가격에 납부할 수 있는 제휴카드의 납부일자가 변경된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재무부는 기존 4월에 납부되던 협회 하나카드 제휴카드의 납부일자가 2021년부터는 1월 13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우리 협회는 하나카드사와의 제휴를 통해 연 6만5000원의 연회비를 5000원 할인된 6만원에 납부할 수 있는 제휴카드를 서비스하고 있다. 협회 하나카드 제휴카드는 협회 홈페이지 내 팝업창과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사무국(02-3291-5435 > 3번)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 세계 점유율 압도적 1위’의
믿을 수 있는 염색성

4분 30초의 초고속 염색 / 전자동으로 진행되는 인텔리전트 클리닝 / 자동 시약량 모니터링 / Cytocentrifuge 기능 / 다양한 염색성 저장 및 편리한 사용 / 시간당 400매의 고속처리 / 폐수 용기 모니터링 / 염색데이터 보호 기능 / 추적관리기능 데이터 저장 및 전송

- 그람염색기
- 결핵염색기
- 혈액염색기
- 세포염색기(New)

Aerospray® Slide Stainer / Cytocentrifuge



수입원: (주)브라이텍
Tel: 02-948-8246 Fax: 02-948-7559 Email: cs.brightek@gmail.com Web: www.brightek.co.kr

협력사
(주)성현메디텍 / 대왕약품 / 동방메디텍 / (주)동성메디칼 / 프라임메디텍 / 길랩 / (주)하메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지난 26일 '조직·세포병리 검체 관리 오류 발생'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이번 주의경보는 의료기관 내 검체 관리 지침이 부재하거나 의료진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사례 내용과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및 관련 예방 활동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조직·세포병리 검체 관리의 오류로 진단이 잘못되거나 지연돼 환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검체를 안전하게 획득하고 정확하게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의료기관 내 검체 관리지침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개정하도록 인증원은 권고하고 있다.

또한 검체 라벨링도 중요하다. 인증원은 ▲여러 장의 검체 라벨은 혼동을 줄 수 있으니 필요한 만큼만 출력하고 ▲검체 라벨에는 최소 두 개의 환자 식별자와 검체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검체를 용기에 담거나 라벨링 시 두 명의 숙련된 보건의료인이 함께 작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라벨링 시 보건의료인은 아래 4가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 라벨이 환자의 식별정보 및 검체 정보와 일치합니까?
- 검체가 용기 안에 담겨 있습니까?
- 용기에 정확한 개수의 검체가 있습니까?
- 올바른 검체 처방이 있습니까?

코로나19 진단검사 청구코드 어떻게 구성되나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월 코로나19 진단검사에 유전자 검사법인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법'을 긴급사용승인제도로 도입한 이후, 진단검사 결과 확인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6시간에서 약 1시간으로 단축시켜 응급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핵산증폭법'을 추가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는 면봉을 사용해 코나 입에서 채취한 상기도 검체에서 유전물질(핵산)을 추출하고, 진단키트를 사용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판별해 내는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진단검사 과정에 따라 각기 수가코드가 다르고 가산체계에 따른 산정코드도 다르기 때문에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명시된 수가 기본코드는 6개다. 여기에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 종별, 검사 대상, 검사 주체, 검사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7개 산정코드를 합하면 총 42개의 코드로 분류할 수 있다.

수가코드는 진단검사에 사용된 진단키트에 따라 달라진다. 지난 2월부터 사용된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법'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수가 기본코드는 'D6584'다. 여기에 산정코드 3자리가 붙어 총 8자리로 구성된다.

산정코드 3자리는 검사종류와 가산체계에 따라 총 6가지로 구분된다. 앞 2자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등의 검사종류고, 마지막 1자리는 6, A, B, C, D, E, F 등으로 표기하는데, 이는 가산되는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마지막 자리에 붙는 숫자 '6'은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 등에 부여되며, 진단검사분야 질가산 평가결과에 따른 소정점수로 1등급 4%는 A, 2등급 3%는 B, 3등급 2%는 C, 4등급 1%는 D로 기재한다. 또한 병리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 4% 가산되며 산정코드는 F로 기재한다.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나 결과값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도입된 응급용 선별검사 키트를 사용한 경우 청구코드는 달라진다. 응급용 선별검사 키트를 사용할 수 있는 환자는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실 내원환자로 '중증응급환자'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에서 사용된다.

응급용 선별검사의 경우 수가코드와 선별코드는 총 3가지로 'D6584 98', 'D6584 99'와 'D6802 98'이 있다. 마찬가지로 가산체계에 따라 8자리 중 마지막 1자리에 '6, A, B, C, D, E, F' 코드가 붙는다.

응급용 선별검사 청구코드인 'D6584 98'와 'D6802 98'은 '감염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긴급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 받은 요양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D6584 99'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으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에서 시행된다. 특히 'D6802 98'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포함 호흡기 바이러스, 폐렴원인균 등 22종을 진단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 환자의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5명의 검체를 취합해 검사하는 취합검사가 도입되면서 이에 따른 청구코드도 별도 부여됐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 중 임상증상이 없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취합검사를 실시한 경우 코드는 'D6588 00', 'D6598 00'으로 구분된다.

이 때 허가병상이 15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의 경우 취합검사가 어렵다면 청구코드 'D6584 04'인 코로나19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법 확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씨젠의료재단, 대구경북검사센터 개원행사 성료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재)씨젠 의료재단은 10월 20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에 위치한 대구경북검사센터에서 개원식을 진행했다. 대구경북검사센터의 실제 개원은 올해 1월이었지만, 대구·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그동안 개원행사를 계속 연기해왔다.

개원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따라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대구경북검사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개원행사에서는 식전 행사로 테이프 커팅과 검사실 투어가 진행되었고, 본 행사로 재단 및 대구경북검사센터 소개와 함께 내·외빈의 개원사와 축사, 격려사가 이어졌다.

대구경북검사센터 서현석 대표원장은 개원사를 통해 "실시간 검체 운송과 응급검사 시스템을 통해 대구·경북지역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검사 서비스를 선보이는데 임직원 모두와 함께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며 각오를 다지고 "대구경북검사센터가 지닌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지켜봐 주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천중기 이사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사회적 혼란을 경험해야 했지만,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진단검사를 수행하는 우리의 사명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인지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며 "씨젠의료재단은 검체검사 수탁전문기관으로서 임상적 판단에 힘을 보태기 위해 질병검사 분야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집전공		
전공명	정원	지원자격
임상병리학전공	80	임상병리사 자격증 소지자(예정자)

- ▶ 모집기간 2021.01.18.(월) ~ 2021.02.05.(금)
- ▶ 등록기간 2021.02.17.(수) ~ 2021.02.19.(금)
- ▶ 납부방법 계좌이체(가상계좌)
- ▶ 개강예정일 2021.03.02.(화)
- ▶ 전형방법 선착순모집
- ▶ 접수처 신학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 문의 031)870-3813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2021년 1월 중 <http://life.shinhan.ac.kr> 에서 모집공고)

기타 모집과정		★표시는 신학대학교 총장명의 학위취득	
전공명	정원	전공명	정원
간호학전공	80	*사회복지학전공	40
방사선학전공	80	부동산학전공	40
		체육학전공	40
		사회복지현장실습	160

신학대학교 학점은행제 임상병리학 학사 학위 취득 신입생모집

- ▶ 우수한 접근성 - 망월사역(전철역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
- ▶ 장학혜택 - 다양한 장학혜택
- ▶ 역사성 - 50년의 역사와 전통



2020년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시도회·분과학회 보수교육(5개 분과학회) 일정

시도회 보수교육(16개 시도회)

시도회 1차 보수교육 : 10.31. (토) 시도회 2차 보수교육 : 11.21. (토) 시도회 3차 보수교육 : 12.12. (토)

분과학회	보수교육일	교육시간	이수시간	필수과목
임상생리검사학회	11월 07일	13:00~17:00	4시간	미운영
임상화학검사학회	11월 14일	14:00~18:00	4시간	자살예방교육
임상검사정보학회	11월 28일	13:00~17:00	4시간	자살예방교육
임상미생물검사학회	11월 28일	13:00~19:00	4시간	자살예방교육
조직세포검사학회	12월 05일	13:00~17:00	4시간	자살예방교육

▶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공동주관 하이라이트 교육(웹세미나)

교육명	교육일	교육시간	수탁인증
대한임상병리사 정도관리협회 공동주관 하이라이트 교육	11월 28일	14:00~17:00	기관수탁인증

웹세미나 보수교육 Q&A

시도회 및 분과학회 웹세미나 보수교육에 관해 회원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Q&A 식으로 정리해봤다.

Q 웹세미나 보수교육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A 협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Q 웹세미나 보수교육은
모바일 기기로 시청이 가능한가요?

A 웹세미나 보수교육은 PC, 노트북,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Q 웹세미나 보수교육 출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보수교육을 시청할 수 있는 URL 주소를 등록한 회원님들의
문자 메시지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자신이 신청한 시간만큼 웹
세미나 보수교육을 시청하면 됩니다.

Q 하루 보수교육으로 4시간을 이수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웹세미나 보수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시
간 내에서만 인정되므로 프로그램 시간표를 확인한 후 교육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Q 웹세미나 보수교육 4평점 이수 시
품질인증 대상교육 신청도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2020년도 품질인증 교육반영은 웹세미나 보수교
육을 포함한 온라인 보수교육, 종합학술대회 이수 대상자 명단
을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로 일괄 신청할 예정입니다.



정읍시보건소 허성욱 소장 인터뷰

“건강과 더불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약 11만 명이 살고 있는 전라북도 정읍시. 시내에 위치한 보건소의 풍경이 아침부터 바쁘다. “어제 검체 채취 얼마나 했어?” “소장님, 거의 4백 명은 왔다 간 것 같아요.” “아이고... 다들 검체 채취한다고 고생 많았겠네. 수고했어요.” 정읍시보건소에는 하루 평균 60여 명의 시민들이 코로나19가 의심돼 상기도 검체 채취를 받는다. 하지만 지난 10월 5일, 정읍시 양지마을에서 일가족 8명과 주민 4명 등 1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양지마을에는 14일 간의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이어서 10월 21일에는 서울 확진자와 접촉한 2명의 시민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정읍시는 그동안 공석이었던 정읍시 보건소장에 허성욱 건강증진과장을 임명했다. 허성욱 소장은 임상 병리사 출신으로 원광보건대학교를 졸업해 정읍아산병원, 정읍시보건소, 전라북도청 보건의료과를 거쳐 다시 정읍시보건소에서 보건소장이 되었다. 정읍시 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허성욱 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Q. 중요한 시기에 보건소장에 취임하셨습니다

A. 지금 정읍시보건소장은 사무실 밖에 나가 있는 동안은 계속 재택근무하는 느낌이에요. 언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 바로 출동해 조치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양지마을 사건 때는 보건소에서 생활하며 계속 근무했고, 이동제한이 해제된 지금은 집에서 출근해 코로나19에 관한 상황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신문에 게재된 보건위생 관련 기사를 확인하고 정읍시보건소 내 3개 과(보건위생, 건강증진, 건강재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Q. 보건소장의 사명감이 막중할 것 같은데요

A. 막중하죠. 정읍시 내 보건에 대한 책임은 앞으로 다 제가 져야 하나요. 그래도 부담보다는 제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게 편합니다. 예전에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 할 때 각 부서에 협조를 구하는 느낌이었었는데 소장이 된 지금은 지시를 할 수 있으니까요.

대표적인 예로 정읍시에서 감염병 대응은 건강증진팀이 담당하고 있는데 시민들 민원 전화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었는데 소장이 되면서 코로나19 콜센터 업무를 다른 과에서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Q. 임상병리사로서 보건소장이 되는 길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A. 보건소장이 된 건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지 28년 만인데 어떻게 보면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전라북도청에서 근무한 경험이 큰 도움이 됐는데 도청 보건의료과에서 12년을 근무하면서 시와 군의 보건업무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각 보건소에서 일하는 임상병리사 후배들이 있다면 광역자치단체에서 근무할 기회를 잡으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일은 힘들지만 넓은 데서 근무하면서 제 시야도 넓어질 수 있었거든요. 아마 전라북도청을 넘어 보건복지부에서 일하면 더 많이 배우고 할 수 있는 일도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보건소장이 되기 전 보건위생 업무를 3년, 건강증진 업무를 1년 3개월 동안 해서 그런지 어려운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것들은 직원들에게 숙제로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숙제라기보다는 업무에 관한 질문인데, 직원들 사이에는 소장이 업무를 많이 준다는 말도 도는 것 같아요.



Q. 얼마전 양지마을에서 코로나19 양성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했을 때 어땠나요?

A. 정읍 양지마을에 일가족 8명을 비롯해 총 12명이 감염이 됐는데, 한 가족이 동시에 8명이 감염된 사례는 전국에서도 없을 거예요. 순차적으로 걸리는 게 아니라 동시에 걸린 거예요. 다행인 건 이분들이 이동 경로가 단순했어요. 각자 다른 곳에서 복잡하게 여러 장소를 오갔다

고 하면 정읍시 전체가 이동제한에 묶였을 텐데, 마을에서만 있어서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었죠. 이동제한이 풀린 날에는 바로 양지마을에 방문했는데 생계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Q. 보건소장이 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무엇일까요?

A. 보건소장이 되면서 느낀 건 제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건강이라는 거예요. 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여러 사업을 합니다. 길을 내고, 하천도 정비하고, 주택도 짓고 그러죠. 그런데 이 모든 사업들은 시민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시청의 역할이 주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시정에 있어서 보건소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읍시장님한테 건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 보건소장으로 목표가 있다면?

A. 보건소 내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더 많은 직원들이 보람차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좋은 결과와 함께 승진의 기회도 더 많이 만들어 주고요. 공무원은 뭐니뭐니해도 승진이니까요. 지금 정읍시의 모토가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인데 건강이 곧 행복한 만큼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시민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사업들을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Q. 임상병리사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보건소 후배들에게 말을 해주자면 의료기술직, 보건직, 간호직 등 다양한 직군들이 있는데 임상병리사로 의료기술직으로 들어와 검사실에만 있기보다는 행정업무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예요. 그래야 더 넓은 안목을 가지고 승진도 할 수 있거든요. 사실 다른 부서로 가는 게 쉽지 않지만 노력을 하셔야 해요. 저는 공교롭게도 5년 단위로 일이 바뀐 것 같은데 보건직으로 시작해 의료기술직, 그리고 도청에서 다시 보건직으로 일했어요. 새로운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또 임상병리사 보건소장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Q. 보건소장 이후 하고 싶은 건 없으실까요?

A. 보건소장까지 되었으니 공무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그동안 일만 열심히 하며 살았던 것 같아 퇴직 후에는 그동안 자주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찾아갈 계획이예요. 그리고 해보고 싶은 일도 적고 있어요. 신앙생활, 수영, 대형 면허 따기, 음악활동, 요리 등 할 게 많아요. 여기에 기회가 된다면 협동조합을 설립해 행정업무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찌 퇴직 후에 할 게 더 많은 것 같네요.(웃음)

세계임상병리사연맹(IFBLS) 학술대회에 대해

지난 9월 12일, 세계임상병리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Biomedical Laboratory Science, 이하 IFBLS) 이사회에서는 2022년 총회 및 학술대회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병리협보에서는 IFBLS에 관한 내용을 독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IFBLS는 1954년, 스위스의 엘리자베스 플레처(Elisabeth Pletscher)와 그의 동료들이 처음으로 임상병리사들의 국제 모임을 조직했습니다. 이날 임상병리사(Medical Laboratory Technologists)와 방사선사(Radiographer)가 함께 취리히에서 보였습니다. 여러 번의 모임 끝에 엘리자베스 플레처를 비롯한 임상병리사들은 중요한 행사를 기획합니다. 바로 전세계 임상병리사들이 모여 협력할 수 있는 국제 기구를 설립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IAMLT(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edical Laboratory Technologists)란 이름으로 IFBLS는 처음 탄생했습니다. 지금은 30여개 회원국의 임상병리사들이(IFBLS homepage: Biomedical Laboratory Scientists and Technologists)이 2년마다 열리는 총회 및 학술대회에 모여 임상검사과학에 관한 프로그램과 교육 포럼, 교류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IFBLS를 창립한 엘리자베스 플레처

IFBLS 총회는 보통 세계적인 대학이 위치한 도시에서 개최됩니다. 때때로 IFBLS 이사회 의장국에서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IFBLS의 의장국은 총회가 어디서 열리든 참석합니다. 1976년 미국 시카고 주에서 제12회 IFBLS 총회가 열린 이후, IFBLS 총회와 학술대회는 유럽 밖 국가에서도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IFBLS는 더반(남아프리카공화국), 퍼스(호주), 고베(일본), 밴쿠버(캐나다)와 같은 곳에서 열렸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2006년 우리나라 서울에서 제27회 IFBLS 총회 및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IAMLT(IFBLS의 전신) 총회

1961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행사가 열린 이후 IFBLS 총회와 학술대회는 2년마다 계속해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비록 올해는 덴마크에서 열리기로 했던 학술대회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내년으로 연기되긴 했지만 IFBLS 학술대회는 여전히 각 나라의 임상병리사와 임상병리학과 학생이 국제컨퍼런스, 학술 포럼 등의 행사를 통해 다른 나라의 임상병리사와 학술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서울과 일본 고베에서 열린 IFBLS 총회 및 학술대회는 성공적인 학술대회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일본은 1988년 학술대회를 위해 10년 동안 노력을 쏟았습니다. 그 노력 덕분에 고베에서 열린 IFBLS 학술대회는 매우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제26회 IFBLS 총회 및 학술대회는 연맹 역사상 가장 성공적으

로 개최된 학술대회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임상병리사들은 7년을 학술대회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 참석해 성공과 실패 요인을 꼼꼼히 분석하는 등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학술대회를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2006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IFBLS 학술대회는 약 9,000의 전세계 임상병리사들이 참석하며 역사에 길이 남을 대회가 되었습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06 IFBLS 총회 및 학술대회

IFBLS는 임상검사과학의 세계 최신 트렌드를 다룹니다. 또한 국제포럼, 소셜 프로그램도 임상검사과학 분야 학술대회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여기에 IFBLS는 학술대회 초창기부터 개최국의 검사실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이 기획되어 왔습니다. IFBLS에서는 검사 기술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장비, 검사 및 근무 환경 등을 모두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전시부스도 IFBLS 학술대회의 주요 볼거리입니다. 전세계 진단업체들이 전시에 참가하기 때문에 임상병리사라면 새로운 시약과 기기를 접하기에 최고의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단업체도 전세계의 고객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과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IFBLS는 놓칠 수 없는 학술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IFBLS 참석자들은 학술대회가 열리는 도시를 둘러보고, 매 저녁마다 의장국을 포함한 회원국 임상병리사들과 네트워킹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IFBLS의 목표는 전세계 임상병리사들이 만나 소통하고 서로 배우며 각 나라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IFBLS를 더욱 영향력 있는 기구로 만들기 위해 더 많은 국가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 검사실을 견학하는 IFBLS 회원들

IFBLS의 목표는 전세계 임상병리교육의 표준화입니다. 연맹국간 표준화된 교육과 실습을 제공하고, 동의성(equivalence) 있는 학위를 제공하는 것이죠. 이를 실현하기 위해 IFBLS 이사회는 TF팀을 만들어 핵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세계 보건기구(WHO)와도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 감염을 막는 데 진단검사가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때문에 2022년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35회 IFBLS 총회 및 학술대회는 우리나라의 K-방역을 필두로 전세계의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ASCPi, 해외에서 임상병리사로 일하고 싶다면?



ASCPi 자격은 검사실 전문요원, 전문병리사, 병리사, 병리학자 등 전세계 약 1만3천명의 임상병리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스페셜리스트(Specialist) 7종을 비롯 해 총 20개의 자격시험을 볼 수 있으며 842명의 회원이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ASCP 등록심사위원회(BOR)는 ASCPi 기준에 합당한 새로운 국제 인증서 제도를 승인했습니다. 새로운 인증제도의 도입으로 세계 각국의 임상병리사들은 BOR 시험을 거쳐 최고 수준의 자격 인증서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SCPi 자격시험은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구성했습니다. 자격시험에는 ISO(국제표준기구) 기준, 제반 국제 기준, 국제인증 및 안전 규정 에 맞는 질문이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울, 부산, 대구 센터에서 ASCPi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인증이란 일정한 자격 기준에 맞는 개인의 능력을 비정부기관(NGO) 또는 협회에서 인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ASCP 등록심사위원회의 인증인 한 사람이 의료기관의 검사실에서 본 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ASCP 등록심사위원회에서는 필수교과목, 임상실습교육 및 실습을 모두 마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인증서를 교부해 주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Specialist 7종(SH, SM, SC, SBB, SCT, SCYM, SMB), Technologist 2종(MLS, HTL), 단일 분야 Technologist 8종(MB, H, M, C, BB, CG, CT, Ctgyn), Technician 3종(MLT, HT, PBT) 총 20개 분야의 인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Specialist (학사 이상 + 전문분야)	Hematology, Microbiology, Chemistry, Blood Bank, Cytometry, Cytotechnology, Molecular biology
Technologist (학사 이상)	MLS(medical laboratory scientist), HTL(histotechnologist)
Technologist (단일 분야 학사 이상)	Hematology, Microbiology, Chemistry, Blood Bank, Cytogenetics, Cytotechnologist, Molecular biology, gynecologic cytology
Technician (준학사 이상)	MLT(medical laboratory technician), HT(histotechnician), PBT(phlebotomy technician)

인증서를 받으려면 규정된 학력과 경험 교육연수의 요건을 갖추고 해당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시험은 ASCPi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결제가 가능하며 일정 비용을 내고 온라인 연습 시험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은 3년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3년마다 새로운 인증이 필요합니다.

ASCP는 자격을 갖춘 회원들에게 질 높은 보수교육과 전문성 개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하여 회원들이 임상검사과학 및 병리학 분야의 혁신적인 내용의 지식을 갖추도록 돕고 있습니다. ASCP 등록심사위원회는 최초 인증과정을 개선하고 임상병리사들이 업무수행능력을 유지하는 일에 오랫동안 참가해 왔습니다. 최근 보건 의료 전문가들의 국제적인 추세는 업무 수행능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ASCPi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이러한 흐름에 합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CHEMISTRY DxC 880I, DxC 800, AU Series
- IMMUNOASSAY DxI 800
- HEMATOLOGY DxH 800 / LH1500 Workcell System / LH 780 / LH 750
- SERUM PROTEIN IMAGE 800
- HEMOSTASIS ACL TOP / TOP 500 CTS, ACL ELITE PRO, ACL Family
- LAB Automation System
- Open Clinical Chemistry Reagent
- IMMUNOLOGY ELISA Reagent
- MAST ALLERGY
- BD Tube & Syringe, BACTEC FX, MGIT 960/320
- GYNETICS Follicle Aspiration Needles
- Molecular Diagnostics



본사 : 서울시 성동구 도선동 330번지
T. 02-2294-6411 / 080-021-7171 F. 02-2293-6556

‘나는 오늘도 보건소로 출근합니다’

김봉재 회원



그 어느 때보다 건강이 중요한 요즘이다. 예전부터 ‘웰빙’이나 ‘워라밸’이나 건강한 삶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언급돼왔는데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철저한 생활 방역까지 챙겨야 하게 됐다. 앞으로 한동안은 ‘방역’과 ‘건강’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지 않을까. 국립경찰병원에서 7년, 가평군보건소에서 10년 동안 근무한 김봉재 회원은 “주변 환경이 우리의 면역력을 만든다”고 주장한다. 그는 병원체의 원인을 찾아 제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건소에서는 다양한 방역 사업을 진행하는데, 방역은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봉재 회원은 책 「나는 오늘도 보건소로 출근합니다」로 몸과 마음의 면역을 말한다. 이 책에서는 예전에 자주 볼 수 있었던 방역차부터 보건소에서 하는 각종 검사, 코로나19로 변화된 삶의 모습까지, 우리의 ‘건강’에 연관된 여러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든다. 책을 출간하면서 김봉재 회원이 직접 연락을 해 왔고, 그를 만나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Q. 본인 업무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국립경찰병원에서 7년 동안 진단검사의학과에 근무하고, 경기도 가평군보건소에서 10년 동안 근무한 임상병리학과 94학번 김봉재입니다. 보건소에서 임상병리 검사업무와 함께 재난대비 응급의료, 전쟁대비 총무계획, 생물테러 대비대응, 에이즈 성매개 감염병 관리, 소독의무 대상시설관리 등의 생소하고도 다양한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Q. 어떻게 책을 쓰게 되었나요?

A. 국립병원의 검사실에서 근무 할 때는 대부분 검사 결과가 숫자이고, 의학용어 코멘트만 사용하면 되었습니다. 이후, 국립병원에서 보건소로 근무지를 옮기면서 공문 작성을 하려다 보니, 처음에는 문서작성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문서 내용을 잘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습하면서 조금씩 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책을 내고 싶다는 생각을 이전에도 했었지만, 퇴직한 뒤나 먼 미래에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근무하면서 궁금한 부분이나 생각나는 일들을 메모해왔는데, 2~3년 전쯤부터 마음 속에서 뭔가 쓰고 싶은 게 더욱 올라왔습니다. 그때부터 조금 더 자세히 쓴 것 같아요.

Q. 출판사 선정부터 시작해 책 출간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A. 책을 출간하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취업 준비할 때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실 때면 도서관 서가에 있던 자기계발서를 읽었는데, 그때 읽었던 책의 내용들에 살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책을 만들고 싶었는데, 막상 만들려니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출판사에 연락하는 건 취업 준비할 때 이력서를 내는 느낌이었습니다. 거의 서른 곳의 출판사에 원고를 낸 것 같아요. 거절 연락을 받을 때면 너무 아쉬웠지만, 다행히 한번 출간해 보자는 연락을 받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하고도 몇 달은 ‘이런 내용을 사람들에게 보여도 되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상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출간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Q. 「나는 오늘도 보건소로 출근합니다」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A. 임상병리사 업무를 하며 겪은 일과 보건소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며 든 느낌을 적었습니다. 늘 하는 업무지만 하루하루가 새로웠어요. 제가 겪은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책을 썼습니다. 전공 공부나 취업 준비할 때의 과정과 같은 살면서 경험했던 일들도 넣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임상병리사에 대해서도 알리고, 지역마다 가까이 있는 보건소를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 만한 설명도 썼어요. 그리고 감염병 및 재난대비 업무와 관련한 사례들이나 정보, 우리들의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내용들도 담겨 있습니다.

Q. 책에 대해 가장 특별한 한 가지를 꼽는다면

A. ‘생명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연을 살리면서 그 안에서 조화를 이뤘으면 합니다. 그동안 인간의 무분별한 방역으로 벌과 물고기들이 쓰러지는 모습도 보고,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때는 동물들을 대량으로 땅속에 살처분하는 모습도 봤어요. 너무 마음 아픈 순간이었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지구가 힘들어지고, 결국 우리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자연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깊이 고민해보고, 더 나은 방법으로 개선했으면 합니다.

Q. 책을 쓴다고 했을 때 주변 동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A. 주변에선 제가 책을 낸다는 걸 몰랐습니다. 저도 제 책이 나올 수 있을지 얼마 전까지 불확실했거든요. 책 만든다고 말해놓고 책이 안 나오면 나중에 괜한 이야기만 한 것 같아서 따로 주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집에는 세 아이가 있어 글을 쓰기 어려워 아침 일찍 출근 전에 카페에 잠깐 들러 쓰고, 점심시간에도 보건소 근처 카페에서 글을 썼습니다. 카페에서 글 쓰는 걸 다른 직원들이 본 적이 있는데 책이 나오니까 ‘아~ 그때 쓰던 게 책에 들어갈 글이었구나!’ 하더라고요.

부모님도 책을 출간한 후 소식을 아셨는데 먼저 이야기하면 일하면서 책 준비한다고 걱정하실 것 같아 따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책을 내는 건 아내만 알고 있었죠. 아내는 제 꿈과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아내가 이해해줘 책을 쓸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큰딸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어느 날부터 책 준비하는 것을 알고는 “아빠 책 언제 나와요?” 하고 가끔 묻곤 했어요. 그럴 때면 더 열심히 썼죠. 아빠가 진짜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Q. 현재 (또는 최근 기억하는) 가평군보건소의 코로나19 상황은 어떤가요?

A. 대도시가 아니어서 처음에는 확진자가 없었는데, 다른 지역보다 몇 달 뒤에 확진자가 발생했어요. 감염병이 유행할 때 보면 확실히 도시에서 벗어난 곳이 더 안전한 듯합니다. 예전에 신종플루나 메르스 때도 대도시와는 발생 차이가 컸어요.

Q. 임상병리사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우리는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눈에 잘 띄지 않아 사람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다른 부서에서 볼 때 바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앉아서 차분하고 정확하게 해야 하는 일이라서 더욱 그럴 거예요. 이런 점을 다른 사람들이 다독여 주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알아주지 않아 서운하더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가 여러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 스스로가 자부심을 갖고 일했으면 합니다.

이 책은 학교 다닐 때 전공 지도를 잘 해주신 교수님, 전국의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선배님, 직장 동료, 다양한 임상병리사 회원 분들의 조언과 격려 덕분에 만들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많은 분이 있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Q. 앞으로 회원님의 계획이나 목표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일반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감염병 예방, 재난 대비,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좀 더 자세히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취업 준비 때 어려웠던 경험을 살려 임상병리 후배들의 취업에도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보건직, 의료기술 직에 관심을 두고 근무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 되는 정보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나는 오늘도 보건소로 출근합니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QR코드로 확인하세요.



2020년! 인증샷 이벤트

여러분의 병리협보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병리협보는 정회원 분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호 병리협보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 간단한 감상평과 함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총 2분을 추천하여 소정의 기념품(4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다음 병리협보에 게재됩니다.

- 1) 접수기한: 2020년 11월 24일까지 도착
- 2) 접수방법: 접수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이메일(kamtreporter@daum.net)로 발송
- 3) 접수양식 -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사진
 - 해당 기사에 대한 간단한 의견
 - 개인정보: 성명, 면허번호, 상품을 받으실 주소



[제453호 당첨자]

● **정지은 회원:** 2007년도 대학생활 당시 임상병리사를 영어로 Clinical pathologist라고 배웠습니다. 본의 아니게 저를 임상병리사가 아닌 임상병리과 전문의라고 소개할 뻔 했다고 생각하니 아찔하네요. 이러한 검사 및 자격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임상병리사 선생님들 비롯하여 임상병리과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교수님들께도 유익한 정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검사 및 자격 용어 정리해주신 구본경 편집부위원장님, 임상병리사협회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기억하겠습니다. 임상병리사는 'Medical Technologist!'

● **박명대 회원:** 현재 중소병의원에서 수탁기관에 의뢰 시 의료기관이 10% 위탁검사관리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중소병의원은 장비비용 및 시약 단가 때문에 많은 곳에서 여러 검사를 의뢰 보내는데 한편으로는 위탁검사관리료 때문에 일선 병원운영관계자 분들이 원내검사 보다는 위탁검사를 보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정된 의료기관 내의 임상병리사의 입지가 더 좁아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 의료기관 종별 의료수가 반영 점수가 다른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정도 관리나 기타 인증을 실시함으로써 중소병의원에서도 가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된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기사를 통해 중소병의원 현업에 계시는 많은 임상병리사 선생님들이 업무에 적용하여 의료기관 내에 입지를 세우고 도움이 되어 중소병의원에서도 임상병리사가 필수 인력으로 인식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원 종합검진 제휴복지사업 안내

본 협회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건강증진센터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협회 정회원(직계가족 포함)에게 종합검진 프로그램을 할인가에 제공합니다.

종합검진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의

02-920-5491, 5106

회원 여러분의 기고글을 기다립니다!

이런 정보, 나만 알고 있기 아깝다! 공유하고 싶었던 적 없으신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생생한 현장 정보와 노하우를 병리협보를 통해 다른 임상병리사 회원님들과 공유해 주세요!

- 접수기한 : **매월 20일**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kamtreporter@daum.net)으로 원고와 관련 파일 발송
- 기고문 주제 : 임상병리사와 관련된 것이라면 뭐든지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Seegene Medical Foundation
 글로벌 질병검사 전문 의료기관



창립 30주년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재)씨젠의료재단은
품질 완벽주의를 추구합니다



씨젠의료재단 본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20
 부산경남검사센터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7
 대구경북검사센터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619
 광주호남검사센터 | 광주광역시 남구 효우로 200
 카자흐스탄 알마티 검사센터(SKL) | Almaty, Kazakhstan

검사의뢰
 학술문의

1566-6500

www.segenemical.com